

국악·클래식 상설무대 풍성... 올해 南道는 공연세상

빛고를 국악전수관 9일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빛고를 천원의 행복'·아트스페이스도 시즌 시작 야외공연장 갖춘 '빛고을전통문화관' 9일 개관

2월이 시작되면서 움츠렸던 공연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상설공연들도 올해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들은 모두 무료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시 서구청이 운영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의 상설 공연 프로그램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9일 무대를 시작으로 올 한해 공연을 시작한다.

이우정 대표가 고사극 '비나라'로 첫 문을 열며 대금산조, 가야금병창, 한량무 등이 이어진다. 이어 16일에는 전통예술단 '다스름'이, 23일에는 빛고을무용가야금 연주단이 무대에 오른다. 3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국악 단체들이 초청됐다.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 초청 민속음악 공연(3월1일), 성삼은 교수 초청 가야금 연주회(8일), 이왕재 초청 타악공연(15일), 전미향 초청 퍼리 연주회(22일), 이정화 초청 가야금병창공연(29일) 등이 예정돼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행사가 오는 9일부터 2012년 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2003년 시작된 목요상설 공연은 지금까지 335회 운영됐으며 약 4만6000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2012년 무대는 12월 20일(8월 휴관)까지 모두 40여회 진행된다. 오는 9일 열리는 개막공연은 우리소리연구회 '소리바치' 초청 공연으로 꾸며진다. '소리에 열원을 담아!' 함께 하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판소리, 전통놀이, 춤, 풍물, 타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빛고을전수관에는 공연장 이외에도 국악기 전시실(박물관)이 갖춰져 있으며 국악문화학교도 운영한다. 문의 062-350-4557.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빛고를 천원의 행복'도 2012년 시즌을 시작한다. 첫 공연은 오는 20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아시아아트스

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클래식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매월 한차례씩 26회 진행된 '빛고를 천원의 행복'은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셋째 월요일 시민들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빛고을문화관 옆에 자리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목요상설공연'은 3월말부터 관객들을 만난다. 재단측은 공연장의 좌석이 48석에 불과, 관객들이 관람에 불편을 느끼는 데 따라 110석으로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현재 시설 구조 변경과 관련해 시와 협의중이며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좌석을 늘린 후 3월말부터는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9일 개관하는 빛고을전통문화관도 상설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전통문화관은 야외 공연장 '소리마당'을 갖추고 있으며 무송원을 복원한 국악당에서도 100여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그림일기

박성완 개인전, 10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서

서양화가 박성완씨가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홀레 광주)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공사장 그림일기'를 주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옛 전남도청 일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선사한다. 호남의 현대사와 함께해 온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거대한 크레인이 설치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을 서정적인 화풍으로 표현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의 모습과 조금씩 위용을 드러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온 뒤 다수의 단체전과 제8회광주비엔날레 '임여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07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도청1'

지오니 前 광주비엔날레 감독,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내년에 열리는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베니스비엔날레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감독 선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인 지오니 감독은 베를린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2006년), 마니페스타(2004년) 감독,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2003년) 등의 전시를 기획했고 플래시아트 인터내셔널 편집장(2000~2002년) 등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2년간 경매 최고 낙찰가, 박수근 화백 45억 외국작가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104억 기록

국내 경매사가 지난 12년간 진행한 경매에서 작품별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운 국내작가는 박수근 화백, 해외작가는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술경제 월간지 아트프라이스는 100호 발행을 기념해 '대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진행한 '2000~2011 국내 아트옥션 작품별 낙찰가격 100순위' 조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경매사(해외지사 포함)가 진행한 경매에서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낙찰가 45억원으로 국내 작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외국작가 1위인 리히텐슈타인은 104억원의 기록했다. 또 국내 경매사가 진행한 경매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100위까지 순위를 매긴 뒤 이에 포함된 작품 수를 따져봤을 때 박수근은 38점, 김환기는 26점, 이우환은 22점, 천경하는 9점을 올려 1~4위를 차지했다.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국내 경매사의 낙찰가 상위 100위권 내에 모두 7점을 올렸다. 조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미술경매사 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베르디·푸치니·도니제티... '오페라 행복한 중독'

7일 광주주요예회관 화요예술무대

베르디·푸치니·도니제티... 유명 작곡가의 오페라 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성악그룹 '이칸판데'(회장 박수연)는 '오페라 행복한 중독'이라는 주제로 광주주요예회관 화요예술무대에 선다. 7일 오후 7시30분 광주주요예회관 소극장. '이칸판데'는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 조선대 음악교육과 이하나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

난 2008년 창단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내 말쯤 들어봐요 아디나', 람베르투어의 '루치아' 중 '주위는 침묵에 잠겨', 베르디의 '맥베스' 중 '오, 나의 아들이여', 푸치니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내 이름은 미미', '무제타의 왈츠' 등이다. 마지막에는 전 출연진이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



이하나

박수연

래'와 '나부코' 중 '희망을 보내어' 등을 합창한다. 서민지·이진영·김진우·정의영·임현진·김미현·노선진·정주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라도닷컴 '영산강 350리 그 길을 걷다' 펴내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는 지역 문화잡지 월간 '전라도닷컴'이 영산강의 아름다움을 담은 가이드북 '영산강 350리 그 길을 걷다'를 펴냈다. 방송작가 김인정씨가 쓴 이 책은 영산강 구석구석을 다지며 만난 가슴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다큐멘터리 최성욱 감독이 영산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곁들였다. 영산강이 품고 있는 다양한 풍경과 강줄기를 따라 만나는 표정, 강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그려졌다. 영산강 물길에 시작되는 담양

가마골의 응소, 금성산성, 담양천, 관방제림, 죽녹원, 무안생기미섬, 회산백령지, 풍탄강, 영산강변의 고분들 등 주변의 명소들도 함께 소개했다. 또 망월동 국립5·18묘지, 무등산, 풍영정, 박용철 생가, 김남주 시비 등 남도의 역사·문화 명소도 함께 소개하고 영산강 탐방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답사지도도 곁들였다. <도서출판 전라도닷컴·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